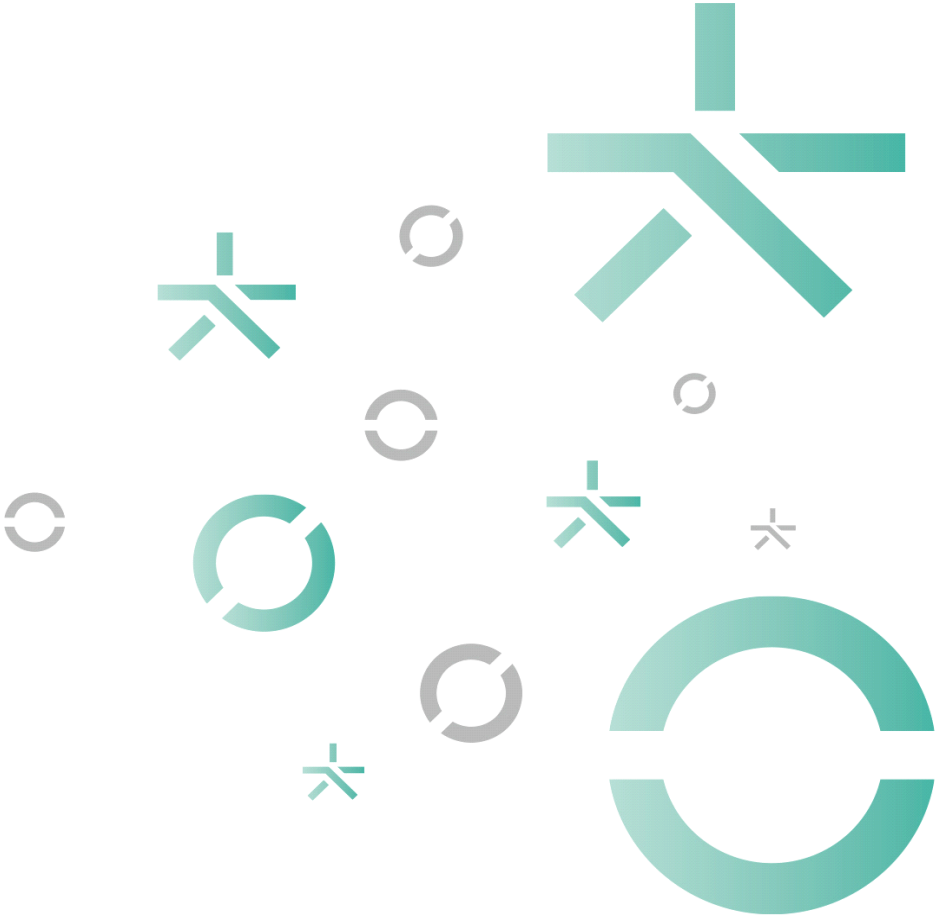


뉴인천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연구

민규량



연구책임

민규량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032-260-2630

grm1002@ii.re.kr

열람방법

인천광역시 행정자료실

인천연구원 자료실, 홈페이지(www.ii.re.kr)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국내의 인재 개발전략은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관점으로 전환되는 추세여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준비가 요구됨.
 - 교육부가 주도하는 5개 사업이 RISE로 통합되어 지방으로 이관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의 8개 사업은 2개로 통합되고 기획 관련 업무가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과 연계하여 구상될 예정임.
 - 이에 지방정부 체계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2024년에 이러한 체계가 자리잡혀야 하는 상황임.
- 인천시 관내에는 다양한 훈련기관들이 인적자원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수요자와 공급자 간 효율적인 매칭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본 연구는 상기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지역 차원의 효율적인 인적자원 양성에 필요한 시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인천시 인적자원 양성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고, 인천시 차원에서 통합적인 인재 양성 관리 시스템 구축과 효율적인 인적자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함.

2. 인천시 인적자원 양성체계 현황

- 인천시 인적자원 양성체계는 교육협력팀과 일자리정책팀, 일자리지원팀, 기타 산업 관련 부서별로 추진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중앙부처의 예산으로 개별 교육 수행기관이 진행하는 교육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거버넌스가 없는 상황임.
- 현재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인적자원 양성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5년 이후 부처별 사업의 통합과 함께 지자체가 사업 시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인천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함.
 - 교육부 사업은 2025년 이후 RISE 사업으로 통합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RISE 사업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를 고려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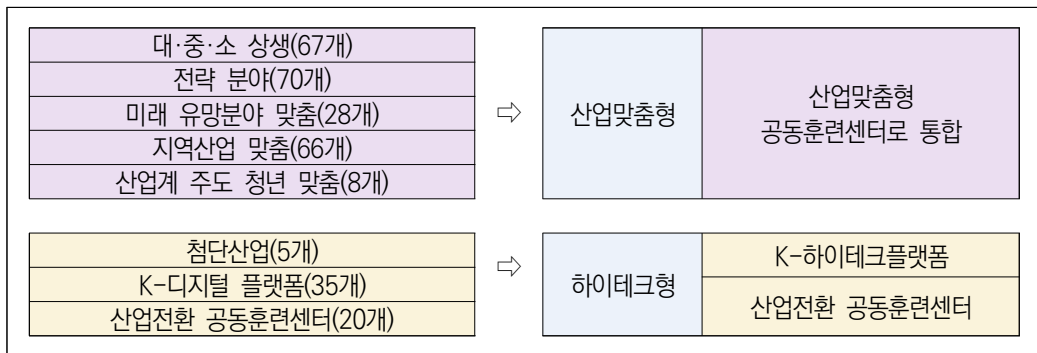
[요약 표 1] RISE 사업통합 대상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액	사업 대상
RIS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3,540억 원	지역혁신플랫폼 9개
LINC 3.0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육성	4,070억 원	일반대 76교, 전문대 59교
HIVE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900억 원	전문대-지자체 컨소시엄 50개
LiFE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510억 원	일반대 30교, 전문대 20교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2,500억 원	비수도권 사립대학 66교

자료(출처): 한국연구재단(202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내부자료)

- 고용노동부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을 통해 이뤄지던 8개의 사업유형을 산업 맞춤형과 하이테크형으로 통합해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요약 그림 1]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유형 통합안



자료(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2023.10),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유형통합 추진계획

- 인적자원 양성사업 운영 추진체계는 [요약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유형별 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문기관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별 역할 배분을 보여줌.
 - 유형1과 유형2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유형으로, 수행기관과 직접적으로 예산집행과 사업 수행 등의 연계가 이루어짐. 유형3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업하여 수행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는 유형이며, 유형4에서는 지방정부가 교육 수행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요약 표 2] 인적자원 양성사업 운영 추진체계 유형 구분

기능\유형	유형1 (중앙정부주도형)	유형2 (전문기관협업형)	유형3 (지방정부협업형)	유형4 (지방정부주도형)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중앙정부	중앙정부+전문기관	중앙정부+지방정부	중앙정부+지방정부
사업 수행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지방정부
예산집행	중앙정부	중앙정부+전문기관	중앙정부	중앙정부+지방정부
평가 및 의결	중앙정부	중앙정부+위원회	지방정부	지방정부+위원회
컨설팅/ 네트워킹	-	0	0	0
교육 수행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전문기관 : 사업 수행을 위탁받는 기관으로 중앙정부 출연기관 또는 유관기관이 주로 수행

**수행기관 : 고등학교, 대학, 대학교 등 관내에 있는 교육 수행기관을 의미

- 현재는 유형2와 유형3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이들 유형은 중앙정부 주도하에 전문기관이 사업 수행과 예산집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유형3은 전문기관에게 독립적인 사업 평가와 의결 권한을 부여함.
- 향후 유형4의 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방정부의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맞춤형 인력양성을 강조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임.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역시 현재는 기업수요에 맞춰 다양한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24년부터는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 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유형4에 가까운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임.

- RISE 사업의 도입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변화는 지방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체계의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즉, 새로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사업 수행에 있어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능력이 요구됨.
- 현재 인천시에서는 일자리정책팀과 일자리지원팀, 교육협력담당관, 각 산업 관련 사업팀이 부서별로 인력양성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따라서 다양한 개별 사업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조정과 통합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함.
- 효과적인 사업관리와 실행을 위해, 인천시 관내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을 아우르고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의 중앙 사업팀 설립이 필요함. 이를 통해, 지역의 인적자원 양성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지방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구조를 효율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위원회 조직이 필요함. 새롭게 조직되는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상기한 조치를 통해, 인천시는 인력양성 관련 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맞춤형 인력양성 전략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음.

3. 기업의 인적자원 양성 교육 수요조사 결과

1) 종합정리

❖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인지도

- 인천시의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는 주요 프로그램 중심으로 쏠려 있으며, 제조업 관련 기업과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그리고 종사자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
 - 인천시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는 주로 인터넷과 SNS를 통해 이루어지며, 인천시의 홍보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인력양성 프로그램 활용 경험은 주요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이 특정 프로그램의 활용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냄.

❖ 홍보와 업무 효율성 향상 관련 직무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

- 대부분의 인천시 기업들이 직무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업종, 기업 규모, 뿌리산업 여부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나타남.
 -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직무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높이 평가함
 - 학위교육과 일반훈련에서는 회사경쟁력 향상, 직무교육에서는 신기술 대응을 주된 프로그램 운영 이유로 밝힘.
 - 직무교육의 경우 단기 교육을 선호하며, 학위교육과 일반훈련에 대해서는 업무시간 내 교육은 힘들다고 응답함.
 - 한편, 직무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의 거의 절반은 사업 분야와의 연관성 부족을 이유로 들었으며, 업무 일정 차질도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응답함.
- 지원금과 관련하여서는 직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국비 활용이나 지원 없이는 교육이 어렵다고 보았는데, 의약품 제조업은 기업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개선 방안으로는, '인천시의 교육비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통신산업과 반도체 제조 분야는 '기업 참여를 고려한 교육과정 개설'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에도 프로그램 홍보의 강화, 업무 연계성 있는 교육과정, 비용 절감, 간소화된 신청 절차,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도제학교 실습 학생 관리 개선 등이 주요 개선 사항으로 제시됨.

2) 시사점

❖ 산업별 특성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 중요

- 인천시의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는 제조업, 뿌리산업, 종사자 수가 많은 기업에서 높게 나타남. 전반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홍보와 맞춤형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함.
- 대부분의 인천시 기업들이 직무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데, 주로 업무 효율성 향상과 신기술 대응을 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을 강조함.

- 직무교육에 대해 단기 교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위교육과 일반훈련에서는 업무시간 내 교육이 어렵다고 느끼는 기업이 많음. 따라서 유연한 교육 시간 설정과 단기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 중 '인천시의 교육비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평가되었으며, 특히 정보통신산업과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는 기업 참여를 고려한 교육과정 개설의 중요성이 강조됨.
- 기업들은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더 많은 홍보, 업무 연계성 있는 교육과정, 비용 절감, 간소화된 신청 절차,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도제학교 실습 학생 관리의 개선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함.

[요약 표 3] 설문조사 주요 내용 요약 및 시사점

구분	요약	시사점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의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는 제조업, 뿌리산업, 종사자 수가 많은 기업에서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제조업 및 대규모 기업 중심으로 홍보 및 맞춤형 제공 필요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인천시 기업들이 직무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 • 특정 산업의 경우 학위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교육의 실질적인 효과와 혁신 기술 대응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개발 필요
교육시간/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교육은 단기 선호, 학위교육과 일반훈련에 대해서는 업무시간 내 교육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한 교육 시간과 단기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 강조 • 학위교육의 경우 자기 계발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 학습자 대상의 홍보가 중요
개선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 중 '인천시의 교육비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적 지원과 업종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의 중요성 강조
개선사항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업무 연계성 있는 교육과정, 비용 절감, 간소화된 신청 절차,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도제학교 실습 학생 관리 개선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접근성 향상 필요

4. 전문가 인터뷰 조사 결과

1) 인터뷰 조사 결과

- 본 연구는 인천시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조사를 목적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자 FGI(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연구 방법을 활용함.
- 본 연구에서의 면담자 구성은 거버넌스 구성 시 참여하게 될 행정과 교육 및 실무 분야 주체를 포함함.
 - 행정체계 : 행정체계 담당자들은 예산집행, 기획 및 네트워크 구성 등의 업무를 행정적 측면에서 수행하는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
 - 교육 및 실무 : 교육체계를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체계 내에서 교육 수행을 위한 기획,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결정자 중심으로 구성
- 면담 내용은 크게 정책 영향 예상, 현 체제 진단, 향후 방향으로 구성함.
 -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통합체제 변화가 인천시 인적자원 양성에 미치는 영향, 인천시 인적자원 양성체계에 대한 진단,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함.
- 주요 면담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음.

[요약 표 4] FGI 면담 결과 개요

구분	행정체계	교육 및 실무
정책 영향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유형의 통합 안으로 인해 대·중·소 상생으로 중심 변화 예상 : 직능 훈련의 기업별 격차가 커질 것으로 보이며 지역의 영세기업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임 • RISE의 통합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에는 인자 위, 교육부에는 인적자원위원회의 위상을 가진 RISE 센터가 생기는 구도가 될 수 있음 • RISE가 시행되면서 지방으로 사업들이 많이 몰려있으며 이러한 위기의식이 인천시 차원에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인력양성사업은 보통 학교의 교칙 사업에 근거하거나 교수님 개별과제로 진행하는데, 이러한 것의 취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사업통합이라는 것이 가지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통합된 사업예산을 두고서 수도권 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타 지역 대비 인천시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음. • 얼마나 지자체에서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임. •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실제 사업 수행하는 수행기관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봄.

구분	행정체계	교육 및 실무
현 체제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사업이 현재 세분화, 파편화되어 진행하다 보니 재원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음. • 향후 RISE 등이 자산맛 등 일자리 사업과 별개로 운영된다면 이러한 경향은 심해질 수 있음. • RISE가 도입되면 기존 사업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얼마나 더 매칭할 수 있느냐인데, 각 대학이 사업에 도전할 때, 지자체의 예산을 매칭해서 계획해 줄 수 있는 부서나 체계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SE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역에서 사업을 기획하는 팀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사업 기획을 주도하는 조직이 없음 • 대학이나 교수가 시에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시에서 담당 부서가 협업을 잘해주면 진행이 되고 아니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임. • 로컬 수준에서의 이해관계 조정 및 전략 방향 설정에 따라 RISE 등이 설계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시스템이 부재함.
향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흩어져 있는 사업 등에 대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이 필요함. • 중앙정부의 경우 인재정책실에서 산업별 필요 인재, 필요 자원 등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중앙에서 수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인천시도 답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외부의 재단설립, TP의 역량 강화, 인천연구원 내의 기획센터 신설 등 헤드쿼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인천시 관내 헤드쿼터 조직의 경우 연속성 있게 관록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조직될 필요가 있음. • 지방정부 고유의 일자리 사업이 하나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임. • 상부의 위원회나 심의회를 활용하여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에서 대학의 인력양성사업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취합하고, 이와 전략산업을 매칭하여 관리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획팀 또는 부서를 만들어야 함. • 기획 부서는 공무원처럼 보직이 계속 바뀌는 조직이 아니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조직이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지역에서 시장님, 각 대학의 총장님 등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탑레벨의 협의체가 필요함. • 인천시 재원을 대학에 투입하여 전략산업 관련 교수를 채용하고 관련 연구팀을 만드는 등의 구체적 방식 적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획하는 팀이 필수적임. • 고용 및 인력양성과 관련한 지역 현안을 발굴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함. • 산업의 경우,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단체나 기관이 포함되어야 함.

2) 시사점

- 고용노동부나 교육부의 통합사업을 아울러서 인천시의 전략산업과 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기획팀이 필요하며, 이는 장기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조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 통합사업 자체의 예산이 크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경우, 부도지사 단위에서 사업을 관리하고 향후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수도권에 속한 인천시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금보다 적극적인 행정 태세가 필요함.
- 특히 결정 체계에서 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대학, 관련 연구원, 인적자원위원회, 기업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시의 전략산업과 수행기관의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5. 거버넌스 체계 제안

1) 인천시 인적자원 양성 거버넌스 구축 방향

❖ 지방정부 주도의 인적자원 양성 패러다임에 걸맞는 거버넌스 확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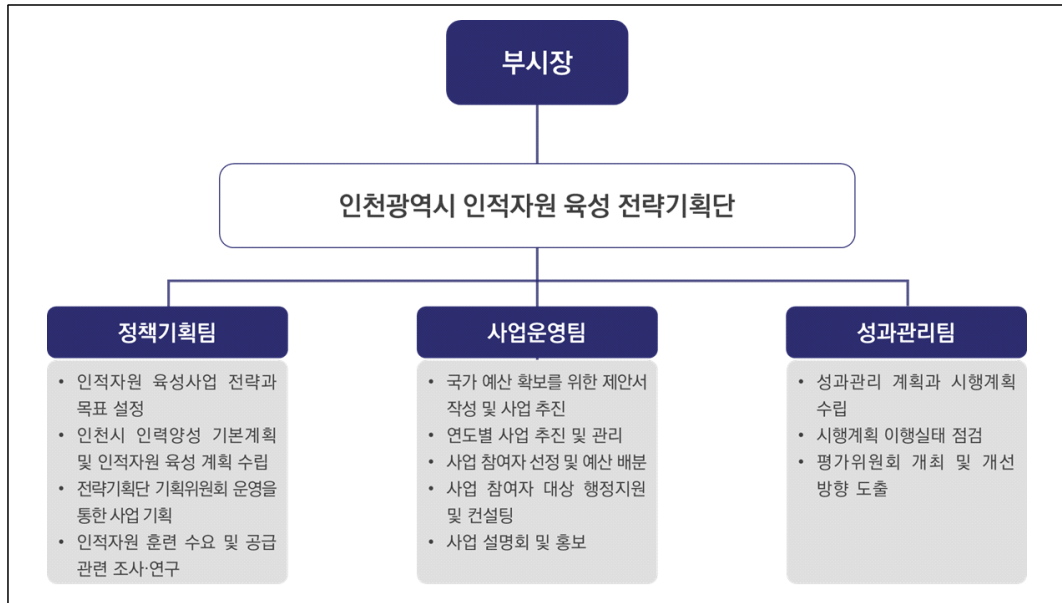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중심의 중앙정부 인적자원 양성사업은 2025년을 기점으로 RISE 사업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으로 통합 예정이며, 지방정부 주도로 사업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 지방정부로 이양된 두 사업의 기획과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 및 조직 디자인이 필요함.
- 인적자원 양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산업과 일자리 정책 그리고 지역대학과의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수적임.
- 인적자원 양성사업의 담당 조직은 부서 간 협력과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수준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업의 예산 규모와 인천시 조직 체계를 고려할 때 부시장 직속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인천시 산업정책과 연계한 인재 양성프로그램 운영 중요

- 효과적인 인적자원 양성사업의 기획과 예산 배분을 위해서, 인천시는 지역의 산업 현황과 전망에 기초한 산업정책을 설계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따른 일자리 수급 전망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인천시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기반으로 인천시, 연구기관, 대학, 그리고 민간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부시장 직속 기관 혹은 유사한 수준의 조직으로 설치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함.

[요약 그림 3] (가칭) 인천시 인적자원 육성 전략기획단 조직 체계 및 역할



자료(출처): 저자 작성

❖ 정책기획, 사업운영, 성과관리 3개 팀으로 구성·운영

(1) 정책기획팀

- (주요 업무) 인천시 인적자원 육성 사업의 기획을 통한 전략과 목표 설정
 - 인천시 인적자원 육성 사업의 전략과 목표 설정
 - 인천시 인력양성 기본계획 및 인적자원 육성 계획 수립
 - 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사업 기획
 - 인천시 인적자원 훈련 수요 및 공급 관련 조사·연구
- RISE 사업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기획
 - RISE 및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의 유사성을 고려해서 단일 기획위원회를 통해 두 사업의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고 핵심과제와 사업을 선정

- 기획위원회 구성 : 경제산업본부장, 미래산업국장, RISE 추진단장, 교육개혁지원관(교육부 파견), 연구기관, 대학별 대표(기획처장 혹은 산학협력단 단장), 훈련기관, 민간기업 대표(2명, 전략산업 분야 기업) 등 15명 내외로 구성

(2) 사업운영팀

- (주요 업무) 인천시 RISE 센터 및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운영
 - 중앙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
 - 연도별 인천시 인적자원 육성 사업 추진 및 관리
 - 사업 참여자 선정 및 예산 배분
 - 사업 참여자 대상 행정지원 및 컨설팅
 - 사업 설명회 및 홍보
- 사업운영팀은 RISE 추진단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현 일자리정책과)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한 센터 지정과 운영을 관리하고 지원
 - RISE 센터를 지정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관리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공동훈련센터의 지정과 운영
- 대학과 기업 등 참여 주체를 대상으로 행정지원과 함께 현장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
 - 인천시 인적자원 양성사업 전문가문단을 구성·운영하여 대학과 기업 대상으로 사업 운영 관련 자문 제공

(3) 성과관리팀

- (주요 업무) 인천시 인적자원 육성 사업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인천시 인적자원 육성사업별 성과관리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시행계획 이행 실태 반기별 자체 점검
 -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위원회 개최 및 개선 방향 도출

- 성과관리팀은 인적자원 육성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체계를 만들고,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별 실적을 관리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
 - 추진 실적 평가위원회는 인적자원 관련 전문가 7명 수준으로 구성하되, '전략기획단'의 운영과 관련이 없는 외부 인사로 섭외
 - 참여 주체 대상 만족도 및 애로사항 조사를 통한 사업 개선 방향 도출

이 보고서는 인천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보고서를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연구원 홈페이지(www.ii.re.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